



한미약품, '나눔 콘서트'로 전하는 선한 영향력

한미약품은 지난 1일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제18회 MPO 정기 연주회 및 제12회 빛의소리 나눔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MPO 단원들과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이 특별한 무대를 선사하고 있다. /한미약품



애경산업, 여성 가정 돕는 '응원꾸러미' 전달

애경산업이 지난 6일 지역 사회 내 여성 중심 가정에 '애지중지 응원꾸러미'를 지원했다고 8일 밝혔다. (왼쪽부터) 애경산업 박찬영 지속가능경영부부장, 인트리 최형숙 대표, 공동모금회 신혜영 사무처장, 다사랑공동체 성재호 대표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애경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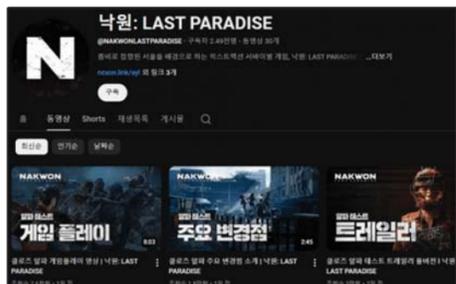
코웨이, '2026 iF 디자인 어워드'서 8개 본상 수상

코웨이가 '2026 iF 디자인 어워드(iF Design Award)' 제품 디자인 부문에서 총 8개의 본상을 수상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테라솔 U, 룰루 슬리믹 비데, 스퀘어핏 공기청정기 82㎡·38㎡, 인버터 제습기 23L, 히티브 온풍 공기청정기. /코웨이



기아 'EV5 GT', 車 기자협회 '3월의 차' 선정

기아의 고성능 전기차 모델인 'EV5 GT'가 우수한 기술력을 앞세워 한국자동차기자협회에서 선정한 '2026년 3월의 차'로 선정됐다. 50점 만점 중 35.3점을 획득해 3월의 차에 최종 선정됐다. 기아 EV5 GT 주행사진. /기아



넥슨, 좀비 세계관 담은 '낙원' 영상 공개

넥슨은 8일 좀비 아포칼립스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신작 '낙원: LAST PARADISE'의 신규 영상 3종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에는 게임의 세계관과 주요 플레이 방식, 생존 시스템을 담았다. '낙원: LAST PARADISE'는 서울을 배경으로 한 좀비 생존 게임이다. 사진은 낙원: LAST PARADISE 공식 유튜브. /넥슨

'왕사남' 1000만 관객 돌파... SLL 제작 경쟁력 입증

(왕과 사는 남자)

범죄도시 시리즈 이어 연속 흥행 전문성 갖춘 멀티 레이블 구조

SLL이 다시 한번 '천만 영화'를 배출하며 콘텐츠 제작 경쟁력을 입증했다.

SLL은 자사 레이블인 비에이엔터테인먼트가 온다웍스와 공동 제작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지난 6일 누적 관객 1000만명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기준이다.

이번 기록은 2024년 상반기 비에이엔터테인먼트가 흥행블름, 빅픽처픽처스와 공동 제작한 '범죄도시4'가 1150만 관객을 동원한 이후 약 2년 만에 나온 또 하나의 '천만 영화'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한국 영화계에



왕과 사는 남자 포스터. /SLL

서 천만 관객 영화가 드물어지는 상황에서, 연속으로 SLL 레이블 작품이 흥행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범죄 액션 장르인 '범죄도시' 시리즈에 이어 사극 장르까지 흥행에 성공하며 장르 확장성도 확인했다는 평가다.

'왕과 사는 남자'는 1457년 영월로 유배된 어린 선왕 이흥위와 그를 지키려는 충장 엄흥도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역사적 비극 속 인간적 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며 전 연령대 관객의 공감을 얻었다.

연출을 맡은 장항준 감독은 특유의 유머와 서사를 결합해 사극 장르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배우 유해진과 박지훈의 연기도 흥행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이번 성과를 SLL이 구축해온 멀티 레이블 제작 구조의

결과로 보고 있다. SLL은 산하 제작사들이 독립적으로 기획과 제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유통·투자 네트워크를 통해 시너지를 내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SLL 관계자는 "각 레이블의 개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왕과 사는 남자'는 올해 첫 천만 관객 영화로 기록됐으며 현재 극장 상영을 이어가고 있다. SLL은 이를 발판으로 올해 영화와 드라마, 예능 등 다양한 콘텐츠로 인업을 선보일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트랙스 크로스오버, 지난해 수출 1위

한국GM, 3년 연속 이름 올러

한국GM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북미 시장 흥행에 힘입어 3년 연속 국내 승용차 수출 1위에 이름을 올렸다.

8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지난해 총 29만6658대를 해외 시장에 판매하면서 수출 1위를 기록했다.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는 15만 568대로 5위에 올랐다.

수출 1위를 기록한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크로스오버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쉐보레의 엔트리급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CUV)



한국GM 쉐보레 2026년형 트랙스 크로스오버 모카치노 베이지.

다. 동급 대비 넉넉한 실내 공간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안정적인 주행 성능이 특징이다.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는 자체 집계 기준 2019년 글로벌 시장 수출을 시작한 이후 2025년까지 누적 해외 판매량 약 98만 대를 달성하며 인기를 입증했다. /양성운 기자 ysw@

유한양행, '2025년 공시우수법인' 선정

정확성·적시성 등 종합 심사

유한양행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개최된 '2025년도 증권시장 공시우수법인 시상식'에서 '유가증권시장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공시우수법인 선정 제도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대상으로 공시 정확성, 적시성, 충실성, 투자자와 소통 등을 종합 심사한다.

유한양행은 성실한 공시로 자본 시장에서 기업 신뢰를 높이고 투자자와

원활하게 소통해 왔다. 특히 공시 품질 관리, 내부 공시 프로세스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해 공시 투명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시장 참여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이번 공시우수법인 선정은 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공시를 통해 투자자 신뢰를 더욱 강화하고 건전한 자본 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인사

- ◆총복도 ◇5급 승진 △자치연수원 이재준 △북부출장소 행정지원과장 최춘화 △혁신도시발전과 조대형 △회계과 한창훈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고호진(파견)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홍은선(파견)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김미경(파견) △충주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 이웅철(파견) △행정안전부 송성현(계획교류) ◇5급 전보 △일자리정책과 정우채 △

- 자치연수원 구철우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지원과장 김홍영
- ◆질병관리청 ◇국장급 승진 △감염병 연구센터장 채희열
- ◆재정경제부 ◇국장급 인사 △정책기획관 김영노

부음

- ▲김제덕씨 별세, 염경엽(프로야구 LG 트윈스 감독)씨 부부상 = 8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5호, 발인 10일. 02-3010-2000

청년창업어업인 장학생 30명 선발

해수부, 수산업·어촌 인재 지원

해양수산부가 '2026년도 1학기 청년창업어업인장학생' 30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달 9일부터 23일까지다.

해수부는 수산계 대학생들이 졸업 후 수산업계 및 어촌에서 청년 인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이장학금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는 청년 인재들의 유입 확대를 위해 장학생 선발 규모를 기존 연간 2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했다.

장학금 지원 대상은 수산계 대학이나 수산계열학과에 재학(1학년 2학기 이상) 중인 학생으로,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 등 1인당 410만 원의 장학금이 지원된다.

또 학기 중에 어업 현장 실습 등 교육도 지원해 수산업·어촌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은 졸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수산업 분야(어촌 소재)에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등의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한국농어촌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영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청년창업어업인 장학금은 학생들이 수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 줄 청년 인재로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밑거름"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수산업에 관심을 갖고 어촌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청년 인재 양성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행복한백화점' 대학생 서포터즈 모집

휴학생 가능... 9명 선발

한국중소벤처기업진흥원이 서울 동행복한백화점의 소비자 접점 확대를 위해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8일 한유원에 따르면 최근 SNS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확산 중인 숏폼 콘텐츠 트렌드를 활용해 소비자의 '행복한백화점' 방문과 중소기업 제품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대학생 서포터즈는 올해 총 9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서울,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휴학생, 대학원생이며 신청 시 ▲개인 SNS 계정 링크 ▲15~30초 분량 샘플영상 1편 ▲콘텐츠 소개 아이디어 기획안 1건을 제출해야 한다.

모집은 6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진행하며 한유원 및 행복한백화점 홈페이지에 게시된 네이버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포터즈로 선정되면 월 2회 행복한백화점 홍보에 관한 숏폼형 콘텐츠



를 자신의 유튜브 또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해야 하며 활동에 필요한 비용, 수수료와 함께 활동실적에 따라 우수자 포상도 제공될 예정이다.

한유원 이태식 대표는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직관적인 숏폼 콘텐츠가 소비자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이에 입점 중소기업의 성장, 매출 확대를 돕기 위해 대학생 서포터즈를 선발하게 됐다"며 "참신하고 빛나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